

# 소양인 소증 진단평가지표 개발 연구

조영<sup>1</sup> · 이준희<sup>2\*</sup>

<sup>1</sup>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의학과 대학원생, <sup>2</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수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Index for the Ordinary Symptom of Soyangin

Young Cho<sup>1</sup> · Jun-Hee Lee<sup>2\*</sup>

<sup>1</sup>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

<sup>2</sup>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

#### Purpose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study 'Diagnostic Index for the Ordinary Symptom of Soyangin'.

#### Methods

The main diagnosis and evaluation index symptoms of Soyangin were extracted based on 『Donguisusebowon』 an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ymptomatology; CPG for soyangin. The selected ordinary symptoms were divided into 4 categories such as Exterior-Cold ordinary symptom (表寒素證), Exterior-Disease unfavorable's ordinary symptom (表病逆證素證), Interior-Heat ordinary symptom (裏熱素證), Interior-Disease unfavorable's ordinary symptom (裏病逆證素證) of Soyangin and translated into Korean. And the inclusion, importance and translation validity of major diagnosis and assessment indicators of Soyangin were surveyed online by a group of Sasang constitutional experts.

#### Results & Conclusions

29 ordinary symptoms and pathological mechanism were selected from references and translated into 51 Korean symptoms. After inclusion yes or no survey by expert group, 45 symptoms were selected. The importance survey showed that 'Have a soft stool' of Exterior-Cold ordinary symptom indication, '(If you're stressed, if you're not in good health) Have a soft stool or diarrhea' of Exterior-Disease unfavorable's ordinary symptom, 'The feces harden easily' of Interior-Heat ordinary symptom and '(If you're stressed, if you're not in good health) Have an upset stomach' of Interior-Disease unfavorable's ordinary symptom were the most important. Finally, [Diagnostic Index for the Ordinary Symptom of Soyangin] was completed after survey of translation validity, reflection of individual opinions by the expert committee, and application of weighted value calculated from the importance survey.

*Key Words*: Diagnosis, Ordinary Symptom, Soyangin

## I. 緒論

임상 진료지침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임상 의사와 환자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한 진술”<sup>1</sup>로 정의될 수 있다. 임상 진료지침은 의료 선진국들에 의해 연구 평가되고 그 활용 가치가 인정되었으며, 한의학계도 한의학의 고유 특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현대화, 과학화를 보완하여 한의 의료를 발전시키고, 더불어 한의 의료기관(韓醫 醫療機關)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성공적인 임상 진료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약 16개의 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하였다<sup>2</sup>.

그 가운데, 이제마의 『東醫壽世保元』<sup>3</sup>을 기반으로 체질적 특성에 따라 분류된 환자의 병증을 각 개인에 맞게 치료하는 사상체질의학에서는 그 특수성을 반영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 및 임상 실무 역량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방법론적 연구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로는 안면진단기<sup>4,5</sup>, 신체측정법<sup>6,7</sup>, 음성기반진단도구<sup>8,9,10</sup>, QSCC<sup>11-12</sup>, 체성분 분석 연구<sup>13,14</sup>, 유전자 분석 연구<sup>15-17</sup>, 심리 성향 연구<sup>18,19</sup> 등이 있다.

또한 사상 체질 병증 분류와 진단알고리즘 개발은 신 등<sup>20,21,22</sup>, 송 등<sup>23</sup>, 이 등<sup>24,25</sup>의 연구와 2014년 개발된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ymptomatology; CPG) 및 관련된 연구<sup>26-31</sup>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2020년 9월 15일(화) <사상체질병증 가이드라인 개발> 개발 위원회의 실무소위원회(위원 11명)에서 기존 CPG는 한문으로 된 원문 지침에 치중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며, 사상의학의 장점이자 고유 특징인 소증(素證)을 통한 임상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체질 병증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소증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진단평가지표들을 의료진과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기존 CPG의 개선과 향후 연구 방향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상의학에서 소증(素證)이란 『동의수세보원신축본』(『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현재는 사상의학에서 체질 판별과 이에 따른 병증 진단 및 치료 방법의 결과와 예후를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sup>32</sup>. 소증(素證)은 사상체질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각각 체질에 따른 생리적 소증뿐만 아니라 병리적 소증의 의미도 포함<sup>33</sup>하여 체질을 진단하고 심리적, 신체적 특징을 포함하여 질환 감별의 확실성과 병증 감수성을 판별한다는 점에서, 소증(素證)은 사상체질로 환자의 병증 진단, 치료 방향 및 추후 검사와 예후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sup>33,34,35,36</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증(素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CPG의 소양인 관련 논문<sup>26-31</sup>의 표리병증(表裏病證)과 순역병증(順逆病證)을 중심으로 각각의 소증 진단 지표(素證 診斷 指標)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표한병 진단 지표(表寒病 診斷 指標) 또는 리열병 진단 지표(裏熱病 診斷 指標)가 기준이 아닌 ‘표한소증 진단지표(表寒素證 診斷指標)’, ‘리열소증 진단지표(裏熱素證 診斷指標)’를 기준으로 하였고, 이 기준이 반영되어 추출된 원문의 진단 및 평가지표를 현 임상에 맞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임상 현장 적용성을 높인 소양인 소증 진단평가지표(少陽人 素證 診斷評價指標) 개발을 목표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CPG의 소양인 관련 논문<sup>26-31</sup>을 기준으로 하고, 『동의수세보원신축본』(『東醫壽世保元辛丑本』)등 문헌을 검토하여 소증(素證)과 관련된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를 추출하였고, 이에 대한 국어번역 및 최종 주요 증후 도출, 전문가 그룹의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 포함 여부 조사, 중요도 조사 및 번역 타당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선된 소양인 소증 진단평가지표(少陽人 素證 診斷評價指標)를 개발하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方法 및 節次

### 1. 연구자 회의 및 전문가 위원회 구성

#### 1) 연구자 회의 구성

사상체질 소증 진단평가지표 개발을 목표로 연구자 5인 회의를 구성하였다.

#### 2) 전문가 위원회 구성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소속된 사상체질의학 교수 23인과 사상의학 임상 경력 10년 이상의 사상체질의학회의 임원으로 구성된 총 38명의 사상체질 소증 진단평가지표의 자문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2.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 추출, 비교 수정 및 확인

기존에 개발된 CPG의 소양인(少陽人) 관련 논문<sup>26-31</sup>을 기준으로 소양인 소증(素證)의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 증상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진단 및 평가지표 증상을 『동의수세보원신축본』(『東醫壽世保元辛丑本』)과 사상체질 임상편람<sup>37</sup>, 사상의학 교과서<sup>38</sup>, 황 등<sup>39</sup>, 신 등<sup>21</sup>의 관련된 연구와 비교하여 소양인 소증(素證)에 관련된 지표를 수정 또는 추가하였다. 그 외 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증(素證)에 관해서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리기전의 관점에서 소증(素證)이 추가되었다.

### 3.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 증상 구분

추출된 진단 및 평가지표 원문표현(증상 또는 병리)을 소양인(少陽人)의 표한소증(表寒素證), 표병역증소증(表病逆證素證), 리열소증(裏熱素證), 리병역증소증(裏病逆證素證)으로 구분하였다.

### 4. 한국어 번역

추출된 진단 및 평가지표 원문표현(증상 또는 병리)을 일상 생활용어와 의학용어에 적합하게 번역하였다. 한 개의 원문지표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한 개의 원문지표를 여러 가지의 한국어 번역지표로 나타내었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국어 사전적 표현에 맞추어 번역하였다.

### 5. 최종 주요 증후 도출

추출된 원문 표현(증상 또는 병리)과 한국어 번역본을 검토하고 소증(素證)과 현증(現證)이 혼재되어 번역된 지표를 정리하여 소증(素證)과 현증(現證)을 구분하여 최종 주요 증후를 도출하였다.

### 6.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1) 전문가 위원회 설문조사

전문가 위원회 위원들에게 추출된 소양인 소증의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의 포함 여부, 중요도 및 번역 타당도를 온라인을 통해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하였다. 총 38명 중 24명이 회신하여 회신율은 63.2%이었다.

#### 2) 전문가 위원회 지문 항목

##### (1)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 포함 여부 조사

최종 선택된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에 대한 소양인 소증 진단기준의 포함 여부(0: 불포함/배제, 1: 포함)를 조사하여, 결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소양인 소증의 진단항목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중요도 산출도 배제하도록 하였다.

##### (2)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 중요도 조사

최종 선택된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의 중요도 평가에서 포함도 여부 조사에 배제된 항목에 대하여는 불포함으로 0점 처리하였으며, 포함도 여부 조사에서

선택된 항목은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1: 중요도가 미미하다, 2: 약간 중요하다, 3: 어느 정도 중요하다, 4: 상당히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로 그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이들 점수의 평균( $\bar{x}_i$ )<sup>1)</sup>과 표준편차( $s_i$ )<sup>2)</sup>를 사용하여 개별 증상에 대한 중요도 점수의 표준점수( $Z_i$ )<sup>3)</sup>를 산출하였으며, 이 표준점수( $Z_i$ )를 해당 증상의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또한, 자유 문항을 통해 추가하고 싶은 진단평가지표 항목 등에 대한 자문을 회신받았다.

(3) 번역의 타당도 조사

관련 원문표현의 국문 번역에 대한 타당성을 1: '타당하다' 2: '타당하나 수정이 필요하다' 3: '타당하지 않고, 수정이 필요하다' 등으로 평가하였고, 증상표현 수정의견은 자유 기술로 의견을 취합하였다. '타당하다'와 '타당하나 수정이 필요하다'를 타당도가 인정되는 것으로 하였고, 수정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수용, 개작 여부의 이유를 판단하여 반영하였다.

$$1) \bar{x}_i = \frac{1}{K_i} \sum_{k=1}^{K_i} x_{ik}$$

$x_{ik}$  : 증상  $i$  ( $i = 1, 2, \dots, I$ )에 대한 전문가  $k$  ( $k = 1, 2, \dots, K$ )의 중요도 평가값

$$2) s_i = \sqrt{\frac{1}{K_i - 1} \sum_{k=1}^{K_i} (x_{ik} - \bar{x}_i)^2}$$

$Z_i$  : 증상 중요도의 평균( $\bar{x}_i$ )과 표준편차( $s_i$ )를 반영한 가중치

$$Z_i = \frac{\bar{x}_i / s_i}{\sum_{i=1}^I (\bar{x}_i / s_i)}$$

Table 1. Extracted Diagnosis and Assessment indicators of Soyangin's Ordinary Symptoms

Extracted Ordinary Symptoms & Pathology (證狀 or 病理)	
表寒素證	Symptoms(9): 身寒, 身體痛, 口苦, 咽乾, 目眩, 心煩(胸脇滿), 乾嘔(水逆), 心下痞硬滿, 浮腫 Pathology(1): 表陰降氣問題
表病逆證素證	Pathology(3): 性情偏急甚化證(健忘), 表陰降氣問題, 腎局陰氣弱화
裏熱素證	Symptoms(6): 身熱, (面·目·口·鼻·牙齒之病), 胸煩悶燥, 大便燥, 渴而多飲, 多汗出, (急病) 小便赤澀 / (緩病) 小便數而少 (陽明證 小便不利)
裏病逆證素證	Symptoms(8): 腿膝枯細, 骨節痠疼, 口乾 不多飲水, 午熱, 背寒, 嘔(嘔吐), 食滯痞滿, 腹痛 Pathology(2): 性情偏急甚化證(健忘), 腎局陰氣弱화

III. 結果

1.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 추출

추출된 소양인 소증(素證)의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의 원문(증상 또는 병리)을 비교 수정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1) 표한소증(表寒素證)

표한소증의 증상 9개: 신한(身寒), 신체통(身體痛), 구고(口苦), 인건(咽乾), 목현(目眩), 심번(胸脇滿), 건구(乾嘔), 수역(水逆), 심하비경만(心下痞硬滿), 부종(浮腫)을 추출하였다. 이 중 구고(口苦), 인건(咽乾), 심번(心煩)은 위열(衛烈)의 증상을 나타내지만 비국음기(脾局陰氣)가 하강(下降)하지 못하고 외한포리열(外寒包裹熱)하는 과정 중 표한(表寒)의 상태에 열증(熱證)이 나타나는 것으로, CPG상 결흉증의 범주에 속한 점을 들어 표한 소증의 지표로 채택하였다. 또한 심번(心煩)과 흉협만(胸脇滿)은 정도와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발생 위치를 고려하여 하나의 지표로 묶었으며, 소변불리(小便不利)는 부종(浮腫)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그 외 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증(素證)은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리기전의 관점에서 소증(素證)을 추가하였다.

## 2) 표병역증소증(表病逆證素證)

표병 역증의 범주에서 성정편급심화증(건망)(性情偏急甚化證(健忘))에 의한 증상을 소증(素證)의 기본으로 보고 관련된 증상 1개: 설사(泄瀉)를 추출하였으나 망음병(亡陰病)과 관련된 소증(素證)인 설사(泄瀉)도 기본적으로 성정편급심화증(건망)(性情偏急甚化證(健忘))을 기본으로 시작되는 증상으로 판단하고 성정편급심화증(건망)(性情偏急甚化證(健忘))에 포함시켰다. 또한, 성정편급심화증(건망)(性情偏急甚化證(健忘))은 증상의 범주가 아닌 병리기전의 관점에 포함하였으며, 그 외 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증(素證)에 관해서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리기전의 관점에서 소증(素證)을 추가하였다.

## 3) 리열소증(裏熱素證)

리열 소증과 관련하여 열(熱)과 관련된 증상은 신열(身熱)을 대표 증상으로 표현하였으며 여기에 면(面)·목(目)·구(口)·비(鼻)·아치지병(牙齒之病)을 추가하였다. 또한, 소변불리(小便不利)와 관련하여서는 (급병) 소변적삼(急病) 小便赤澁)과 (완병) 소변삭이소(緩病) 小便數而少)를 지표에서 묶고 수세보원 원문의 양명증 소변불리(陽明證 小便不利)를 추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리열 소증과 관련하여 증상 6개: 신열(身熱)(면(面)·목(目)·구(口)·비(鼻)·아치지병(牙齒之病)), 흥번민조(胸煩悶燥), 대변조(大便燥), 갈이다음(渴而多飲), 다한출(多汗出), (급병) 소변적삼(急病) 小便赤澁)(완병) 소변삭이소(緩病) 小便數而少) (양명증 소변불리(陽明證 小便不利))를 선택하였다.

## 4) 리병역증소증(裏病逆證素證)

리병 역증(裏病 逆證)의 범주에서 성정편급심화증(건망)(性情偏急甚化證(健忘))에 의한 증상과 신국음기약화(腎局陰氣弱)를 소증(素證) 판단의 기본으로 보고 관련 증상 8개: 퇴슬고세(腿膝枯細),

골절산동(骨節痠疼), 구건 부다음수(口乾 不多飲水), 오열(午熱), 배한(背寒), 구(구토)(嘔(嘔吐)), 식체비만(食滯痞滿), 복통(腹痛)의 증상을 선택하였으며, 그 외 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증(素證)에 관해서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리기전의 관점에서 소증(素證)을 추가하였다. 신국음기약화(腎局陰氣弱)와 성정편급심화증(건망)(性情偏急甚化證(健忘))은 증상의 범주에 분류하지 않고 병리기전의 관점에 포함하였다.

## 2. 추출된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의 국어번역

### 결과물

결과물을 소양인의 표한소증(表寒素證), 표병역증소증(表病逆證素證), 리열소증(裏熱素證), 리병역증소증(裏病逆證素證)에 맞게 번역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 3. 전문가 위원회 온라인 설문조사

사상체질의학 전문가 위원들에게 추출된 소양인 소증의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의 포함 여부, 중요도 및 번역 타당도를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의 포함 여부 분석

#### 결과

#### (1) 표한소증(表寒素證) 포함 여부 분석 결과

표한소증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를 포함한 16개 항목의 포함 여부 설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눈이 어두워 물체가 똑똑히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인다) 66.7%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항목은 표한소증(表寒素證)의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에 포함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Presentation of The Major Diagnosis and Assessment Indicators Related to Soyangin and The Results of Korean Translation

表寒素證	身寒	추위에 예민하다. 손발이 차다.
	身體痛	머리가 아프다. 관절통 또는 근육통이 있다.
	口苦	입안이 쓰다.
	咽乾	목이 마르다.
	目眩	눈이 어두워 물체가 똑똑히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인다. 현기증이 난다.
	心煩, 胸脇滿	가슴이 답답하다.
	表陰降氣問題	대변이 무르다.
	表陰降氣問題	갈증이 나도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乾嘔, 水逆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거린다.
	心下痞硬滿	명치가 그득하고 답답하다. 명치가 멍쳐 단단하다.
	浮腫, 表陰降氣問題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
	表陰降氣問題	얼굴색이 하얀 편이다.
表病逆證素證	性情偏急甚化證(健忘)	불안하고 초조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도중에 자주 깬다. 활동량이 적어도 쉽게 피곤해진다.
		表陰降氣問題 腎局陰氣弱화
	性情偏急甚化證(健忘)	더위에 예민하다. 몸에 열감이 있다. 손발 또는 몸이 뜨겁다. 머리, 얼굴로 열이 오른다. 얼굴이 붉다.
		身熱
裏熱素證	身熱	피부색이 붉고, 자주 발진이 생긴다.
	胸煩悶燥	가슴에서 열감을 느끼며 막힌 듯 답답하다. 폐쇄된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에 있으면 답답해진다.
	大便燥	대변이 쉽게 굳어진다.
	渴而多飲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急病) 小便赤澀 / (緩病) 小便數而少 (陽明證 小便不利)	소변량이 적고 색이 진하다.
	多汗出	머리와 상체로 땀이 많이 난다.
	身熱	불안하고 초조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도중에 자주 깬다. 활동량이 적어도 쉽게 피곤해진다.
裏病逆證素證	腎局陰氣弱화	얼굴색이 탁하고 어둡다.
	腿膝枯細 腎局陰氣弱화	근육량이 줄어 다리가 가늘어진다.
	骨節痠疼 腎局陰氣弱화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외상이 없는데도 허리와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고 아프다.
	口乾 不多飲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거린다.
	午熱	오후나 야간에 열감이 생긴다.
	背寒	매때로 오한이 든다.
	嘔(嘔吐)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면) 속이 메스거리고 심하면 토할 때가 있다.
	嘔, 食滯痞滿, 腹痛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면) 자주 체한다.
午熱, 腎局陰氣弱화 每日午後惡寒發熱 至晚 亦得微汗而解	수면 중에 땀이 난다.	

Table 3. The Analysis of Inclusion Survey Results of Exterior Cold Ordinary Symptom

Items	Inclusion	Exclusion	Ratio(%)
추위에 예민하다.	22	2	91.7
손발이 차다.	22	2	91.7
머리가 아프다.	17	7	70.8
관절통 또는 근육통이 있다.	22	2	91.7
입안이 쓰다.	21	3	87.5
목이 마르다.	21	3	87.5
눈이 어두워 물체가 똑똑히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인다.	16	8	66.7
현기증이 난다.	22	2	91.7
가슴이 답답하다.	22	2	91.7
대변이 무르다.	23	1	95.8
갈증이 나도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17	7	70.8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21	3	87.5
명치가 그득하고 답답하다.	23	1	95.8
명치가 멍쳐 단단하다.	20	4	83.3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	21	3	87.5
얼굴색이 하얗 편이다.	18	6	75

### (2) 표병역증소증(表病逆證素證) 포함 여부 분석 결과

표병역증소증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를 포함한 9개 항목의 포함 여부 설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활동량이 적어도 쉽게 피곤해진다) 58.3%, (얼굴색이 탁하고 어둡다) 60.9%,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소화 안 된다) 62.5%,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식욕이 떨어진다) 54.2%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은 표병역증소증(表病逆

證素證)의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에 포함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리열소증(裏熱素證) 포함 여부 분석 결과

리열소증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를 포함한 13개 항목의 포함 여부 설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폐쇄된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에 있으면 답답해진다) 62.5%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항목은 리열소증(裏熱素證)의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에 포함된다고 조사되었다.

Table 4. The Analysis of Inclusion Survey Results of Exterior Disease Unfavorable's Ordinary Symptom

Items	Inclusion	Exclusion	Ratio(%)
불안하고 초조하다.	22	2	91.7
집중력이 떨어진다.	20	4	83.3
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도중에 자주 깬다.	17	7	70.8
활동량이 적어도 쉽게 피곤해진다.	14	10	58.3
얼굴색이 탁하고 어둡다.	14	9	60.9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한다.	23	0	100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배가 아프다.	19	4	82.6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소화 안 된다.	15	9	62.5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식욕이 떨어진다.	13	11	54.2

Table 5. The Analysis of Inclusion Survey Results of Interior Heat Ordinary Symptom

Items	Inclusion	Exclusion	Ratio(%)
더위에 예민하다.	22	2	91.7
몸에 열감이 있다.	23	1	95.8
손발 또는 몸이 뜨겁다.	21	3	87.5
머리, 얼굴로 열이 오른다.	20	4	83.3
얼굴이 붉다.	19	5	79.2
눈, 코, 귀, 입, 목 등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18	6	75
피부색이 붉고, 자주 발진이 생긴다.	18	5	78.3
가슴에서 열감을 느끼며 막힌 듯 답답하다.	23	1	95.8
폐쇄된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에 있으면 답답해진다.	15	9	62.5
대변이 쉽게 굳어진다.	24	0	100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24	0	100
소변량이 적고 색이 진하다.	22	2	91.7
머리와 상체로 땀이 많이 난다.	23	1	95.8

#### (4) 리병역증소증(裏病逆證素證) 포함 여부 분석 결과

리병역증소증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를 포함한 13개 항목의 포함 여부 설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든 13개 항목이 70% 이상의 결과가 나와 리병역증소증(裏病逆證素證)의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 결과

각 소증의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의 포함도 분석 결과에서 제외된 지표는 중요도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표한소증(表寒素證) 중요도 분석 결과

표한소증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를 포함한 16개 항목 중 포함 여부, 분석 결과에서 제외된 1개 지표는

Table 6. The Analysis of Inclusion Survey Results of Interior Disease Unfavorable's Ordinary Symptom

Items	Inclusion	Exclusion	Ratio(%)
불안하고 초조하다.	21	3	87.5
집중력이 떨어진다.	20	4	83.3
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도중에 자주 깬다.	19	5	79.2
활동량이 적어도 쉽게 피곤해진다.	17	7	70.8
얼굴색이 탁하고 어둡다.	17	7	70.8
근육량이 줄어 다리가 가늘어진다.	20	4	83.3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외상이 없는데도 허리와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고 아프다.	22	2	91.7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꺼린다.	19	5	79.2
오후나 야간에 열감이 생긴다.	23	1	95.8
때때로 오한이 든다.	21	3	87.5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속이 메스꺼리고 심하면 토할 때가 있다.	23	1	95.8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자주 체한다.	23	1	95.8
수면 중에 땀이 난다.	20	4	83.3

Table 7. The Analysis of Importance Survey Results of Exterior Cold Ordinary Symptom

Items	$i^*$	$Xi^\dagger$	$Si^\ddagger$	$Xi/Si^\S$	$Zi^\parallel$	Rank
추위에 예민하다.	1	3.96	1.37	2.9	8.14	3
손발이 차다.	2	3.67	1.37	2.67	7.51	5
머리가 아프다.	3	2.79	1.96	1.43	4.01	14
관절통 또는 근육통이 있다.	4	3.67	1.4	2.61	7.34	6
입안이 쓰다.	5	3.38	1.64	2.06	5.8	11
목이 마르다.	6	3.46	1.5	2.3	6.47	8
눈이 어두워 물체가 똑똑히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인다.	-	-	-	-	-	-
현기증이 난다.	7	3.46	1.38	2.5	7.03	7
가슴이 답답하다.	8	3.91	1.38	2.84	7.98	4
대변이 무르다.	9	4.09	1.12	3.63	10.22	1
갈증이 나도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10	2.58	1.82	1.42	4	15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꺼린다.	11	3.29	1.57	2.09	5.88	10
명치가 그득하고 답답하다.	12	3.83	1.07	3.57	10.03	2
명치가 멍쳐 단단하다.	13	3.17	1.61	1.97	5.54	12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	14	3.35	1.58	2.11	5.94	9
얼굴색이 하얀 편이다.	15	2.46	1.69	1.45	4.08	13

\*  $i$ : The number of Symptom†  $Xi$ : Mean value‡  $Si$ : Standard deviation value§  $Xi/Si$ : Mean value divided by Standard deviation||  $Zi$ : Weighted value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15개 지표에 (i) 값으로 번호를 순서대로 1부터 15까지 부여하여 각각의 평균값( $\bar{x}_i$ ), 표준편차( $s_i$ )와 그에 따른 각 지표 문항의 표준점수( $Z_i$ ,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중요도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문가 자문에 의한 중요도 분석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것은 (대변이 무르다)이고, (갈증이 나도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는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표병역증소증(表病逆證素證) 중요도 분석 결과

표병역증소증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를 포함한 9개 항목 중 포함 여부 분석 결과에서 제외된 4개 지표는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5개 지표에 대해 (i) 값으로 번호를 순서대로 1부터 5까지 부여하여 각각의 평균값( $\bar{x}_i$ ), 표준편차( $s_i$ )와 그에 따른 각

지표 문항의 표준점수( $Z_i$ ,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중요도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문가 자문에 의한 중요도 분석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것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한다)이고, (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도중에 자주 깬다)는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리열소증(裏熱素證) 중요도 분석 결과

리열소증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를 포함한 13개 항목 중 포함 여부 분석 결과에서 제외된 1개 지표는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12개 지표에 대해 (i) 값으로 번호를 순서대로 1부터 12까지 부여하여 각각의 평균값( $\bar{x}_i$ ), 표준편차( $s_i$ )와 그에 따른 각 지표 문항의 표준점수( $Z_i$ ,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중요도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전문가 자문에

Table 8. The Analysis of Importance Survey Results of Exterior Disease Unfavorable's Ordinary Symptom

Items	i *	Xi †	Si ‡	Xi/Si §	Zi	Rank
불안하고 초조하다.	1	3.79	1.47	2.57	18.37	2
집중력이 떨어진다.	2	3.29	1.71	1.93	13.78	4
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도중에 자주 깬다.	3	3.13	2.11	1.48	10.56	5
활동량이 적어도 쉽게 피곤해진다.	-	-	-	-	-	-
얼굴색이 탁하고 어둡다.	-	-	-	-	-	-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면)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한다.	4	4.35	0.71	6.09	43.48	1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면) 배가 아프다.	5	3.17	1.64	1.93	13.8	3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된다.	-	-	-	-	-	-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식욕이 떨어진다.	-	-	-	-	-	-

\* i: The number of Symptom

† Xi: Mean value

‡ Si: Standard deviation value

§ Xi/Si: Mean value divided by Standard deviation

|| Zi: Weighted value

Table 9. The Analysis of Importance Survey Results of Interior Heat Ordinary Symptom

Items	i *	Xi †	Si ‡	Xi/Si §	Zi	Rank
더위에 예민하다.	1	4	1.35	2.96	7.53	6
몸에 열감이 있다.	2	4.08	1.1	3.71	9.44	3
손발 또는 몸이 뜨겁다.	3	3.54	1.64	2.16	5.49	8
머리, 얼굴로 열이 오른다.	4	3.54	1.72	2.06	5.24	9
얼굴이 붉다.	5	3	1.79	1.67	4.25	10
눈, 코, 귀, 입, 목 등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6	2.79	1.79	1.56	3.96	12
피부색이 붉고, 자주 발진이 생긴다.	7	3	1.86	1.61	4.1	11
가슴에서 열감을 느끼며 막힌 듯 답답하다.	8	4.25	1.15	3.69	9.39	4
폐쇄된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에 있으면 답답해진다.	-	-	-	-	-	-
대변이 쉽게 굳어진다.	9	4.5	0.59	7.63	19.4	1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10	4.42	0.72	6.16	15.66	2
소변량이 적고 색이 진하다.	11	3.75	1.45	2.58	6.57	7
머리와 상체로 땀이 많이 난다.	12	3.96	1.12	3.53	8.97	5

\* i: The number of Symptom

† Xi: Mean value

‡ Si: Standard deviation value

§ Xi/Si: Mean value divided by Standard deviation

|| Zi: Weighted value

의한 중요도 분석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것은 (대변이 쉽게 굳어진다)이고, (눈, 코, 귀, 입, 목 등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는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리병역증소증(裏病逆證素證) 중요도 분석 결과 리병역증소증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를 포함한 13개 항목 중 포함 여부, 분석 결과에서 제외된 지표는 없었다. 13개 지표에 대해 (i) 값으로 번호를 순서대로 1부터 13까지 부여하여 각각의 평균값( $\bar{x}_i$ ), 표

준편차( $s_i$ )와 그에 따른 각 지표 문항의 표준점수 ( $Z_i$ ,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중요도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전문가 자문에 의한 중요도 분석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것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자주 체한다.)이고, (얼굴색이 탁하고 어둡다)는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 번역 타당도 분석  
결과

번역 타당도와 관련하여 '타당하다'와 '타당하나 수정이 필요하다'를 타당도가 인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1) 표한소증(表寒素證) 번역 타당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이 90% 이상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정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수용, 개작 여부의 이유를 판단하여 반영하였다. 기타 신체통(身體痛)에 (뒷목

이나 어깨 또는 등 부위가 빠근하거나 아프다)와 (등 줄기가 아프다)를 증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흉협만(胸脇滿)에 (가슴에 가래가 낀 것처럼 답답하다)를 증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표병역증소증(表病逆證素證) 번역 타당도 분석 결과

항목 중 '활동량이 적어도 쉽게 피곤해진다'의 항목의 타당도가 89.5%를 나타내었고, 그 외 모든 항목의 타당도가 9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수정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수용, 개작 여부의 이유를 판단하여 반영하였다. 기타 성정편급심화증(性情偏急甚化證(健忘))에 (기억력이 떨어진다.)와 (건망증이 심해져 잘 잊어먹는다)를 증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Table 10. The Analysis of Importance Survey Results of Interior Disease Unfavorable's Ordinary Symptom

Items	$i^*$	$X_i^\dagger$	$S_i^\ddagger$	$X_i/S_i^\S$	$Z_i^\parallel$	Rank
불안하고 초조하다.	1	3.75	1.65	2.27	7.91	5
집중력이 떨어진다.	2	3.25	1.65	1.97	6.85	8
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도중에 자주 깬다.	3	3.42	1.86	1.83	6.37	9
활동량이 적어도 쉽게 피곤해진다.	4	2.63	1.84	1.43	4.97	12
얼굴색이 탁하고 어둡다.	5	2.75	2.05	1.34	4.67	13
근육량이 줄어 다리가 가늘어진다.	6	3.25	1.78	1.83	6.36	10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외상이 없는데도 허리와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고 아프다.	7	3.5	1.38	2.53	8.8	4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거린다.	8	3.13	1.8	1.73	6.03	11
오후나 야간에 열감이 생긴다.	9	4.04	1.23	3.28	11.4	2
때때로 오한이 든다.	10	3.46	1.72	2.01	6.99	6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속이 메스거리고 심하면 토할 때가 있다.	11	3.71	1.2	3.1	10.77	3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자주 체한다.	12	3.63	1.06	3.43	11.94	1
수면 중에 땀이 난다.	13	3.38	1.69	2	6.95	7

\*  $i$ : The number of Symptom

†  $X_i$ : Mean value

‡  $S_i$ : Standard deviation value

§  $X_i/S_i$ : Mean value divided by Standard deviation

||  $Z_i$ : Weighted value

(3) 리열소증(裏熱素證) 번역 타당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타당도가 9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수정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수용, 개작 여부의 이유를 판단하여 반영하였다.

(4) 리병역증소증(裏病逆證素證) 번역 타당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타당도가 9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수정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수용, 개작 여부의 이유를

판단하여 반영하였다. 기타 성정편급심화증(건망)(性情偏急甚化證(健忘))에 (기억력이 떨어진다.)를 증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4. 번역 타당도 설문 결과에 따른 국문 번역 최종 정리

사상 전문가 위원회 번역 타당도 설문 결과에 의한 소양인 소증 국문 번역을 Table 11에 최종 정리하였다.

Table 11. Arrangement of The Results of The Translation Validity Survey

Items	Acceptance or adaptation
<b>Exterior-Cold ordinary symptom (表寒素證)</b>	
身寒	추위에 예민하다
	손발 또는 몸이 차다.
身體痛	머리가 아프다.
	관절통 또는 근육통이 있다.
口苦	입안이 쓰다.
咽乾	목이 마르다.
目眩	눈이 어두워 물체가 똑똑히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인다.
	현기증이 난다.
心煩, 胸脇滿	가슴 또는 옆구리가 답답하다.
表陰降氣問題	대변이 무르다.
表陰降氣問題	갈증이 나도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乾嘔, 水逆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心下痞硬滿	명치가 그득하고 답답하다.
	명치가 멍쳐 단단하다.
浮腫, 表陰降氣問題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
表陰降氣問題	얼굴색이 하얀 편이다.
<b>Exterior-Disease unfavorable's ordinary symptom (表病逆證素證)</b>	
性情偏急甚化證(健忘)	불안하고 초조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도중에 자주 깬다
	활동량이 적어도 쉽게 피곤해진다
表陰降氣問題, 腎局陰氣弱化	얼굴색이 탁하고 어둡다.
性情偏急甚化證(健忘)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배가 아프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소화 안 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식욕이 떨어진다.

Items	Acceptance or adaptation
<b>Interior-Heat ordinary symptom (裏熱素證)</b>	
身熱	더위에 예민하다.
	몸에 열감이 있다.
	손발 또는 몸이 뜨겁다.
	머리, 얼굴로 열이 달아 오른다.
	얼굴이 붉다.
身熱, (面·目·口·鼻·牙齒之病)	눈, 코, 귀, 입, 목 등에 염증이 생긴다.
身熱	피부색이 붉고, 발진이 생긴다.
胸煩悶燥	가슴에서 열감을 느끼며 막힌 듯 답답하다. 폐쇄된 곳이나 공기가 더운 곳에 있으면 답답해진다.
大便燥	대변이 쉽게 굳어진다.
渴而多飲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急病) 小便赤澀 / (緩病) 小便數而少 / (陽明證 小便不利)	소변량이 적고 색이 진하다.
多汗出	머리와 상체로 땀이 많이 난다.
<b>Interior-Disease unfavorable's ordinary symptom (裏病逆證素證)</b>	
性情偏急甚化證(健忘)	불안하고 초조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도중에 자주 깬다.
	활동량이 적어도 쉽게 피곤해진다.
腎局陰氣弱화	얼굴색이 탁하고 어둡다.
腿膝枯細, 腎局陰氣弱화	근육량이 줄어 다리가 가늘어진다.
骨節痠疼, 腎局陰氣弱화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외상이 없는데도) 허리와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고 아프다.
口乾 不多飲水	갈증이 나도 물을 많이 마시지 않거나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午熱	오후나 야간에 열감이 생긴다.
背寒	(오후나 야간에 열감이 있거나 열감으로 땀이난 이후) 때때로 등이 시리거나 오한이 든다.
嘔, 嘔吐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속이 메스꺼워지고 심하면 토할 때가 있다.
嘔, 食滯痞滿, 腹痛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자주 체한다.
午熱, 腎局陰氣弱화 每日午後 惡寒發熱 至晚亦得微汗而解	오후나 야간에 열감으로 땀이 나거나, 수면 중에 식은땀이 난다.

## 5. 개선된 소양인 소증 진단평가지표 작성

전문가 자문 위원회 포함 여부 설문 결과 포함 비율이 70% 이상인 문항만 선별하여, 4 분류 총 45문항(표한소증 15문항, 표병역증소증 5문항, 리열소증 12문항, 리병역증소증 13문항)으로 구성된 개선된 소양인 소증 진단평가지표를 제작하여 Table 12에 정리하

였다.

진단방식은 각 문항에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선택하며, 그 응답 점수와 개별 문항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점수를 다음과 같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되도록 하였다.

Table 12. Improved Standard Instrument for Diagnosis and Assessment of Soyangin's Ordinary Symptoms

Category $i^*$	Ordinary Symptoms	Ordinary Symptom inquiry <sup>†</sup>					$Z_i^{\ddagger}$
		0	1	2	3	4	
表寒素證	1	추위에 예민하다.					
	2	손발 또는 몸이 차다.					
	3	머리가 아프다.					
	4	관절통 또는 근육통이 있다.					
	5	입안이 쓰다.					
	6	목이 마르다.					
	7	현기증이 난다.					
	8	가슴 또는 옆구리가 답답하다.					
	9	대변이 무르다.					
	10	갈증이 나도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11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꺼린다.					
	12	명치가 그득하고 답답하다.					
	13	명치가 뭉쳐 단단하다.					
	14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					
	15	얼굴색이 하얀 편이다.					
表病逆證素證	1	불안하고 초조하다.					
	2	집중력이 떨어진다.					
	3	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도중에 자주 깬다.					
	4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면)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한다.					
	5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배가 아프다.					
裏熱素證	1	더위에 예민하다.					
	2	몸에 열감이 있다.					
	3	손발 또는 몸이 뜨겁다.					
	4	머리, 얼굴로 열이 달아 오른다.					
	5	얼굴이 붉다.					
	6	눈, 코, 귀, 입, 목 등에 염증이 생긴다					
	7	피부색이 붉고, 발진이 생긴다.					
	8	가슴에서 열감을 느끼며 막힌 듯 답답하다.					
	9	대변이 쉽게 굳어진다.					
	10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11	소변량이 적고 색이 진하다.					
	12	머리와 상체로 땀이 많이 난다.					
裏病逆證素證	1	불안하고 초조하다.					
	2	집중력이 떨어진다.					
	3	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도중에 자주 깬다.					
	4	활동량이 적어도 쉽게 피곤해진다.					
	5	얼굴색이 탁하고 어둡다.					
	6	근육량이 줄어 다리가 가늘어진다.					
	7	(특별한 기질질환이나 외상이 없는데도) 허리와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고 아프다.					
	8	갈증이 나도 물을 많이 마시지 않거나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꺼린다.					
	9	오후나 야간에 열감이 생긴다.					
	10	(오후나 야간에 열감이 있거나 열감으로 땀이 난 이후) 때때로 등이 시리거나 오한이 든다.					
	11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속이 메스꺼리고 심하면 토할 때가 있다.					
	12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자주 체한다.					
	13	오후나 야간에 열감으로 땀이 나거나, 수면 중에 식은땀이 난다.					

\*  $i$ : The number of Symptom

† 0: Strongly Disagree; 1: Disagree; 2: Neutral; 3: Agree; 4: Strongly Agree

‡  $Z_i$ : Weighted value

$$P = \frac{\sum_{i=1}^k (Z_i \times A_i)}{4}$$

P : 각 소증 문항의 진단점수

Z<sub>i</sub> : 각 소증 문항의 가중치 (Table 7-10 참고)

(표한소증: k=15, 표병역증소증: k=5)

(리열소증: k=12, 리병역증소증: k=13)

A<sub>i</sub> : 각 소증 문항의 선택 점수

(표한소증: k=15, 표병역증소증: k=5)

(리열소증: k=12, 리병역증소증: k=13)

#### IV. 考察 및 結論

소증(素證) 기반의 진료지침에서 국문 번역은 초기 연구 성격으로 소증(素證)과 관련된 원문을 의료와 임상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번역을 통한 진단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목적으로 번역 범위를 한정하여 시행하였다. 표리(表裏)의 구분은 CPG의 소양인(少陽人) 관련 논문<sup>26,31</sup>과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서 기재되어 있는 이제마의 성정 병리(性情 病理)에 입각한 표리(表裏) 체계를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비수한(脾受寒)의 표증(表證)과 한증(寒證)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한소증(表寒素證)으로, 위수열(胃受熱)의 리증(裏證)과 열증(熱證)을 표현하기 위하여 리열소증(裏熱素證)의 분류 체계로 나누었다. 역증(逆證)의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표병(表病)의 역증(逆證)인 망음병(亡陰病)과 관련된 소증(素證)을 가지는 경우 대부분 망음병(亡陰病)의 병증으로 전개되지만, 일부 리병(裏病)의 역증(逆證)인 음허오열증(陰虛午熱證)으로 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리병(裏病)의 역증(逆證)인 음허오열병(陰虛午熱病)의 소증(素證)을 가지는 경우 대부분 음허오열증(陰虛午熱證)으로 병증이 이어지나, 일부 표병(表病)의 역증(逆證)인 망음병(亡陰病)으로 병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sup>26,27,29,31</sup>. 이를 바탕

으로 하여 역증소증(逆證素證)의 분류는 표한(表寒)과 리열(裏熱)이 아닌 표병(表病)과 리병(裏病)으로 표기하여 ‘표병역증소증(表病逆證素證)’, ‘리병역증소증(裏病逆證素證)’으로 분류하였다. 즉, 표한소증(表寒素證), 표병역증소증(表病逆證素證), 리열소증(裏熱素證), 리병역증소증(裏病逆證素證)의 분류체계로 소양인 병증의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를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중 표한소증(表寒素證)에서 『동의수세보원』 원문 및 CPG와 관련된 소양인 관련 논문<sup>26,31</sup>에 기록되지 않으나 임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변이 무르다), (갈증이 나도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와 (얼굴색이 하얀 편이다)는 표음강기문제(表陰降氣問題)인 병리 관점에서 번역하였다. 신한(身寒)의 국문 번역 시 자각적 냉증인 (추위에 예민하다)와 타각적 냉증인 (손발이 차다)로 번역하였으나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손발이 차다)는 복부를 제외한 부위의 차가운 증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손발 또는 몸이 차다)로 최종 수정하였다. 신체통(身體痛)은 (머리가 아프다)와 (관절통 또는 근육통이 있다)로 최종 수정되는 과정에서 전 등<sup>28</sup>은 “腹痛을 제외한 頭面 및 項強部 痛症, 腰背痛, 四肢肢節痛 등을 포괄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국문 번역과정에서 두부의 통증인 (머리가 아프다)와 그 외 복부를 제외한 목, 어깨, 등, 허리, 손발의 통증을 통칭하기 위해 (관절통 또는 근육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구고(口苦), 인건(咽乾), 심번(心煩)을 전 등<sup>28</sup>은 “外寒包裏熱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여 표음강기(表陰降氣)의 문제로 외한포리열(外寒包裏熱)의 상태가 되면서 위열(胃熱)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본 점과 CPG 관련 논문<sup>28</sup>에서도 세 가지 증상이 표병(表病)의 결흉증의 범주(範疇)에 포함된 점 고려하여 표한 소증의 지표로 채택하였다. 번역 시에도 각각 (입안이 쓰다), (목이 마르다), (가슴이 답답하다)로 번역하였으나, 심번(心煩)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증 부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슴 또는 옆구리가 답답하

다)로 최종 수정하였으며, 번역과정에서 위열(胃熱)이 치성(熾盛)하여 나타나는 리열(裏熱)의 증상인 흉번민조(胸煩悶燥)의 증상과 번역에 있어서 정도와 강약의 차이를 두려고 노력하였다.

목현(目眩)은 사전적 의미로 다양하게 추론될 수 있고 전문가 의견으로는 (눈이 침침하다), (눈앞이 어질어질하다)가 있었으나,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인지하는 표현과 사전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눈이 어두워 물체가 똑똑히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인다)와 (현기증이 난다)로 최종 번역하였다.

건구(乾嘔)와 수역(水逆)은 『동의수세보원신축본』(『東醫壽世保元辛丑本』) 비수환표한병(脾受寒表寒病)의 “嘔者 外寒包裡熱而 挾疾上逆也”, “渴欲飲水 水入即吐 名曰水逆”, “乾嘔”를 참고하여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거린다)로 번역하였다. 심하비경만(心下痞硬滿)은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상을 구분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명치가 그득하고 답답하다)와 (명치가 뭉쳐 단단하다)로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종(浮腫)은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로 번역하였으며 그 이면에는 소양상풍(少陽傷風)의 결흉증(結胸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변불리(小便不利)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병리 관점에서 역증(逆證)은 신국음기(腎局陰氣) 손상(損傷)과 성정편급(性情偏急)이 심화(甚化)된 증상을 통해 감별진단 할 수 있다. 표증(表證)의 신국음기손상(腎局陰氣損傷)은 설사(泄瀉) 여부로, 리증(裏證)의 경우 신국음기손상(腎局陰氣損傷)은 약화된 리열증(裏熱證)에 표한(表寒)의 증상(證狀)을 동반하게 된다<sup>26-31</sup>. 더불어 성정편급심화증(性情偏急甚化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소양인(少陽人)의 항심(恒心)인 구심(懼心)이 건망(健忘)의 상태로 나타난 것으로 단순한 기억력 장애가 아닌 심리적 불안이 극심한 상태를 의미한다<sup>26,27,29,31</sup>. 이를 이론적 근간으로 하여 표병역증소증(表病逆證素證)은 성정편급심화증(건망)(性情偏急甚化證(健忘)),

신국음기약화(腎局陰氣弱), 설사(泄瀉)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얼굴색이 탁하고 어둡다)는 신국음기약화(腎局陰氣弱)의 병리적 관점에서 해석하였고, 성정편급심화증(건망)(性情偏急甚化證(健忘))은 그 내포된 의미를 추론하여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이에 더불어 나타나는 신체 증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불안하고 초조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도중에 자주 깬다), (활동량이 적어도 쉽게 피곤해진다)로 번역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배가 아프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식욕이 떨어진다)의 번역을 추가하였다.

리열소증(裏熱素證)의 신열(身熱)은 위열(胃熱)이 치성(熾盛)한 정도와 청양상승(淸陽上昇)의 손상(損傷) 차이를 번역에 고려하여 (더위에 예민하다), (몸에 열감이 있다), (손발 또는 몸이 뜨겁다), (머리, 얼굴로 열이 오른다), (얼굴이 붉다), (눈, 코, 귀, 입, 목 등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피부색이 붉고, 자주 발진이 생긴다)로 국문 번역하였다. 이중 사상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머리, 얼굴로 열이 오른다)는 역증(逆證)의 상열감과 차별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머리, 얼굴로 열이 달아오른다)로 수정하였으며, (눈, 코, 귀, 입, 목 등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피부색이 붉고, 자주 발진이 생긴다)에서는 (자주)를 생략하여 (눈, 코, 귀, 입, 목 등에 염증이 생긴다), (피부색이 붉고, 발진이 생긴다)로 최종 수정하였다.

흉번민조(胸煩悶燥)는 위열(胃熱)이 치성(熾盛)한 정도와 청양상승(淸陽上昇)의 손상(損傷) 차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가슴에서 열감을 느끼며 막힌 듯 답답하다), (폐쇄된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에 있으면 답답해진다)로 번역하였다. 이 중 (폐쇄된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에 있으면 답답해진다)는 전문가 설문 의견 중 태음인의 호산지기(呼散之氣)와 혼동된다는 의견이 있어 소양인(少陽人) 병증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열(胃熱)이 치성(熾盛)하여 나타나는 증상임을 고려하여 (폐쇄된 곳이나 공기가 더운 곳에 있으면 답답해진다)로 최종 판단하였다.

대변조(大便燥)의 경우 건변(乾便)의 의미를 포함하고자 (대변이 쉽게 굳어진다)로 번역하였고, 갈이다음(渴而多飲), 다한출(多汗出)은 흉격(胸膈)의 열(熱)이 치성(熾盛)하고 신국음기(腎局陰氣)는 약화(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표병증(表病證)과 음허오열증(陰虛午熱證)의 증상과는 번역의 차별성을 두고 위열치성(胃熱熾盛)으로 인한 많은 양의 땀이 발생하는 것과 청양(淸陽)의 불상승(不上昇)의 결과에 기인한 증상을 특징하기 위하여 각각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와 (머리와 상체로 땀이 많이 난다)로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급병) 소변적삽(急病) 小便赤澁과 (완병) 소변삭이소(緩病) 小便數而少의 소변불리(小便不利) 증상은 위열치성(胃熱熾盛)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소변량이 적고 색이 진하다)로 번역하였다.

리병역증소증(裏病逆證素證)에서는 표병역증소증(表病逆證素證)에서 나타나는 공통증상인 성정편급심화증(性情偏急甚化證(健忘))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의 퇴슬고세(腿膝枯細), 골절산동(骨節痠疼)의 증상은 각각 (근육량이 줄어 다리가 가늘어진다)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외상이 없는데도 허리와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고 아프다)로 번역하였다. 이중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외상이 없는데도 허리와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고 아프다)의 번역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외상이 없는데도) 허리와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고 아프다)로 최종 수정하였다.

구건 부다음수(口乾 不多飲水) 번역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꺼린다)로 표병(表病)의 결흉증(結胸證)과는 병리(病理) 기전이 다르고, 신국음기(腎局陰氣)가 견제하는 흉격열증(胸膈熱證)과 달리 리열(裏熱)은 치성(熾盛)하지 않으나 신국음기(腎局陰氣)가 약화(弱)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전문가 수정의견을 일부 반영하

여 (갈증이 나도 물을 많이 마시지 않거나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꺼린다)로 수정하였다. 오열(午熱)은 리열(裏熱)이 치성(熾盛)하지 않고, 신국음기약화(腎局陰氣弱)에서 나타나는 열감과 이후 동반될 수 있는 땀과 오한(惡寒)의 증상으로 특정되므로 (오후나 야간에 열감이 생긴다), (수면 중에 땀이 난다)로 번역하였다. 이중 (수면 중에 땀이 난다)는 표현은 (오후나 야간에 열감으로 땀이 나거나, 수면 중에 식은땀이 난다)로 최종 수정되었다. 배한(背寒)을 유 등<sup>3)</sup>은 “午熱이 발생하는 와중에 表陰降氣의 실패로 인한 寒證이 함께 나타나는 逆證의 병리를 반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임상에서 볼 수 있는 오열(午熱) 이후(땀이 날 수도 있다) 등이나 전신에 느끼는 한기(寒氣)를 말한다(볼 수 있어 (때때로 오한이 든다)로 번역하였으나, 전문가 집단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오후나 야간에 열감이 있거나 열감으로 땀이 난 이후) 때때로 등이 시리거나 오한이 든다)로 최종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구(구토)(嘔(嘔吐)), 식체비만(食滯痞滿), 복통(腹痛)은 신국음기약화(腎局陰氣弱)와 성정편급심화증(性情偏急甚化證)을 기본으로 유 등<sup>3)</sup>은 “裏熱에 비해 表寒指標가 뚜렷해지는 陰虛午熱病에서 보다 본격적인 食滯痞滿, 嘔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비추어 볼 때 표리(表裏)의 병증이 모두 발현된 상태에서 리열(裏熱) 증상을 기본으로 남아 있는 위열(胃熱)에 의해 식욕은 있어 음식을 먹지만 결국 체하거나 메스꺼리거나 토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속이 메스꺼리고 심하면 토할 때가 있다)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자주 체한다)로 번역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1에 최종 정리하였다.

소양인 소증의 주요 진단 및 평가지표와 국문 번역본의 사상 전문가 자문 위원에 의한 포함 여부 설문지 결과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소양인(少陽人) 소증의 진단항목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중요도 산출도 배제하도록 하였다. 번역

타당도 설문 이전의 포함 여부에 관한 설문지 결과와 중요도 설문의 결과는 각각 Table 3-6과 Table 7-10에 정리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소양인 소증 진단평가지표(少陽人 素證 診斷評價指標)를 개발하여 Table 12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해 소양인 소증(素證)을 발췌하고 이를 국문 번역하여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소증(素證) 중심의 진단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의료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문으로 번역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기초 아래 개발된 진료지침은 임상 의료진과 환자의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임상 진료라는 특정 상황에서 진료의 지속성과 보편화된 일관성을 유지하고, 진단자 간의 간격을 줄여 진단 객관화 및 근거 중심 진료를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 부분의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1차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된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2차 검증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과 개선된 소양인 소증 진단평가지표(少陽人 素證 診斷評價指標)를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를 통해 의료인 집단과 환자 집단에 의한 진단평가 지표의 오차를 수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2차 검증과 이 도구의 적용 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한 임상 평가 연구가 진행되어 그 타당성 및 수용성이 검증된다면 한의(韓醫) 임상현장(臨床現場)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현장 활용 효율성 및 표준화 적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는 임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V.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고유번호 : HF20C0159)”

## VI. References

1. Field MJ, Lohr K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directions for a new program.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90.
2.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DEvelopment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in Korean Medicine. 2015. (Korean)
3. Lee JM(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ongguisebowon. Daesung. Seoul. 1998.
4. Do JH, Kim JY.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Technology Using Facial Information. Journal of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2010;37(7):53-61. (Korean)
5. Lee SY, Koh BH, Lee EJ, Lee JH, Hwang MW. Systematic Review on Researches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Using Facial Feature. J Sasang Constitut Med. 2012;24(4):17-27. DOI: <http://dx.doi.org/10.7730/JSCM.2012.24.4.17>
6. Kang JN, Cha YY. Study on Body Circumference Ratio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Using Body Composition.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0; 24(2):338-344. (Korean)
7. Choi YS, Moon G, Baek DG. The Relevance Analysis between 4 Body Type through 5 Part Measuring and Ordinary Symptoms. Korean J. Orient. Int. Med. 2012; 33(4):558-571. (Korean)
8. Han SM. Class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Using Analysis of Speech Features and Statistical Processing. Master's thesis, Daejeon National University, 2011.
9. Kwon CH, Kim JY, Kim KH, Jang JS.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al Groups and Speech Features Based on a Listening Evaluation of Voice Characteristics. Journal of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2012;4(4):71-77. (Korean) DOI: 10.13064/KSSS.2020.4.4.071
10. Park HJ, Kim JY, Jang JS. A Study about Reliability

- of Sasang Constitutional Voice Diagnosis according to Operator Presence. *J Sasang Constitut Med.* 2016; 28(4):309-319. (Korean) DOI: <https://doi.org/10.7730/JSCM.2016.28.4.309>
11. Jung SA, Kim SH, Yoo JS, Lee SG. Study about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ed by QSCC II.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2;23(1):83-92. (Korean)
  12. Lee SJ, Lee JW, Cho HW, Kho Ch, Lim EC.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Classification of Stroke Patients by QSCC II. *J Sasang Constitut Med.* 2015; 27(3):318-325. (Korean) DOI: <http://dx.doi.org/10.7730/JSCM.2015.27.3.318>
  13. Seo JM, Lee YJ, Yun HJ, Kang MS, Baek JH. The Relationship Between Zema 21 and Inbody Based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Differences of Children. *J Korean Oriental Pediatrics.* 2009;23(1):173-193.
  14. KIM HJ. Effect of taeumjowetang on the body composition, serum lipid level and antioxidant enzyme activity of obese female college students. A doctoral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1.
  15. Park TY. (The) Trend 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and Gene Study.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5.
  16. Kim PJ, Seo EH, Lee JH, Ha JH, Choi HS, Jung TY et al. A Study on Sasang Constitutional Gene Selection Using DNA Chips by Multivariate Analysis.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3):131-144.
  17. Hwang SY. Association between Genetic Polymorphism of the Multidrug Resistance 1 (MDR1) gene and Sasang Constitutions. A doctoral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9.
  18. Chae H, Park SH, Lee SJ, Kim MG, Wedding D, Kwon YK. Psychological profile of Sasang typology: a systematic review. *Evid-Based Complement Altern Med.* 2009;6(Suppl1):21-9. DOI: <http://dx.doi.org/10.1093/ecam/nep079>.
  19. Park SH, Kim MG, Lee ST, Kim JY, Chae H. Temperament and character profiles of Sasang typology in an adult clinical sample. *Evid-Based Complement Altern Med.* 2011;2011:794795. DOI: <http://dx.doi.org/10.1093/ecam/nep034>
  20. Shin SW, Lee EJ, Koh BH, Lee JH.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is Algorithm of Soeumin Symptomology.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1): 33-43. (Korean) DOI: 10.7730/JSCM.2011.23.1.033
  21. Shin SW, Lee EJ, Koh BH, Lee JH.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is Algorithm of Soyangin Symptomatology.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3):294-303. (Korean) DOI: 10.7730/JSCM.2011.23.3.294
  22. Shin SW, Lee EJ, Koh BH, Lee JH.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is Algorithm of Taeumin Symptomology. *J Sasang Constitut Med.* 2012;24(4): 28-39. (Korean) DOI: 10.7730/JSCM.2012.24.4.28
  23. Song EY, Park BJ, Song AN, Lee EJ, Koh BH, Lee JH. The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of Soeumin Symptomatology and the Standardized Symptom.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4):429-444. (Korean)
  24. Lee JH, Lee EJ, Koh BH. The Study on the Clinical Meanings of Ordinary Symptoms and Developing Aspects of Present Symptoms according to the Ordinary Symptoms in the Soeumin Symptomatology. *J Sasang Constitut Med.* 2012; 24(3):17-33. (Korean) DOI: 10.7730/JSCM.2012.24.3.17
  25. Lee JH, Lee EJ, Koh BH. The Study on the Energy and Fluid Metabolism and the Pathology and Symptomatology of Taeumin based on The Discourse on Viscera and Bowels of Donguisusebowon. *J Sasang Constitut Med.* 2012;24(4):1-16. (Korean) DOI: 10.7730/JSCM.2012.24.4.1
  26. Lee EJ, Koh BH, Kim DR, Kim JY, Kim JW, Park SS et 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Soyang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Overview.

- J Sasang Constitut Med. 2014;26(3):213-223. (Korean)  
DOI: <http://dx.doi.org/10.7730/JSCM.2014.26.3.213>
27. Lee JH, Lee EJ.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Soyang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iagnosis and Algorithm. J Sasang Constitut Med. 2014;26(3):224-240. (Korean) DOI: <http://dx.doi.org/10.7730/JSCM.2014.26.3.224>
  28. Jeon SH, Choi AR, Lee EJ.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Soyang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Lessor-Yang Wind-Injury (Soyang-sangpung) Symptomatology. J Sasang Constitut Med. 2014;26(3):241-250. (Korean) DOI: <http://dx.doi.org/10.7730/JSCM.2014.26.3.241>
  29. Shin MR, Joo JC, Lee EJ.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Soyang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Yin-Depletion (Mangeum) Symptomatology. J Sasang Constitut Med. 2014;26(3):251-261. (Korean) DOI: <http://dx.doi.org/10.7730/JSCM.2014.26.3.251>
  30. Park HS, Hwang MW, LEE EJ.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Soyang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hest-Heat congested (Hyunggyeok-yeol) Symptomatology. J Sasang Constitut Med. 2014;26(3):262-271. (Korean) DOI: <http://dx.doi.org/10.7730/JSCM.2014.26.3.262>
  31. Yu JS, Lee EJ.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Soyang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Yin-Deficit Diurnal-Heat (Eumheo-oyeol) symptomatology. J Sasang Constitut Med 2014;26(3):272-280. (Korean) DOI: <http://dx.doi.org/10.7730/JSCM.2014.26.3.272>
  32. Lee SK, Hong SC, Song IB. Consideration on characteristic of pathological view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based on medical condition of the 19th century. J Sasang Constitut Med. 1997;9(2):57-66. (Korean)
  33. Shin SW, Kim YH, Hwang MW. Diagnosis and treatment principle in Sasang medicine: original symptom. Integr Med Res. 2016;5(2):99-104. DOI: <http://dx.doi.org/10.1016/j.imr.2016.03.005>
  34. Choi BJ, Ha KT, Choi DY, Kim JK. Study on the 'Dispositional Symptoms (Dispositional diseases)' in Dongyi Suse Bowon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7;21(1):1-9. (Korean)
  35. Lee MS, Bae NY, Hwang MW, CHae 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igestive Function Assessment Instrument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asang Digestive Function Inventory.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2013:1-10. DOI: 10.1155/2013/263752
  36. Lee SJ, Park SH, Cloninger CR, Kim YH, Hwang M, Chae H. Biopsychological traits of Sasang typology based on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and body mass index.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4;14(1):1-10.
  37.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 The Clinical Guide Book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The Literature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nd Ed. Seoul: Hanmi medical publishing. 2010:36. (Korean)
  38.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colleges of Korean med. in Korea(compilation). The revised and enlarge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Jipmoondang. 2012. (Korean)
  39. Hwang MW, Koh BH. The Study on the Pathology of Soyangi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6):1-16. (Korean)